

국적이탈자 올들어 5,700명 '사상 최대'

올 들어 4개월 만에 국적이탈자가 5,700명에 달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연간 국적이탈자의 세 배 수준이다.

국적이탈은 외국에서 태어났거나 외국인 부모의 영향으로 복수국적을 취득한 한국인이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것을 말한다.

9일 '한국경제'가 법무주 자료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올 1~4월 국적이탈자는 5,695명으로 지난해 연간 국적이탈자(1,905명)의 세 배를 기록했다. 출입국·외국인 정책을 총괄하는 법무부가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사상 최대 수치다.

올해 국적이탈자가 선택한 국적은 미국이 72.4%로 가장 많았다. 캐나다(11.7%), 일본(8.7%), 호주(3.2%)가 뒤를 이었다. 국적이탈자의 대부분은 18세 미만 남자로 집계됐다. 병역 의무가 강화된 재외동포법 개정안이 이달 1일부터 시행되면서 '병역기피'를 노리던 복수 국적의 '한인 2세'들이 대거 국적을 포기하고 있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작년 10월 공포된 개정 재외동포법에 따르면 병역미필자인 남자 국적이탈자에게는 국내 취업 및 체류 등이 자유로운 F-4비자 발급이 이달부터 금지된다. 병역을 회피하려는 재외동

포가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비자를 받는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관련 조항이 개정됐다.

외국 국적 취득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한 '국적상실자'도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국적 상실자는 1만9364명, 올 1~4월엔 6,952명을 기록했다.

법무부가 대기 중이던 국적상실자를 집중 처리하면서 비정상적으로 급증한 2016년(3만5,000여 명)을 제외하면 2013~2015년 평균치(1만8,000여 명)보다 연간 1,000명 이상 늘었다.

외국인의 대한민국 국적 취득(귀화)도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지난해 귀화자는 1만86명이었다. 2013년 1만 1,000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하향곡선을 이어가고 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던 중국인이 귀화 대신 영주권 신청으로 선회한 영향이 컸다.

2010년 70%까지 치솟았던 중국인 귀화자 비중이 지난해 47%(4781명)로 낮아졌다. 반면 결혼이민자 증가로 인해 베트남 귀화자는 계속 늘어 지난해 37%(3742명)를 차지했다.

지난해 한국 국적회복자는 2,775명으로 한 해 전보다 소폭 늘었다. 한국에서 노년기를 보내려는 미국 동포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적회복자 중 미국인 비중은 59.6%였다.

세종시 '인구 블랙홀' 현상에 주변 도시 '속얕이'

세종시 인구가 30만 명을 넘어섰다. 출범한지 불과 6년 만에 '중견 도시'로 급성장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부처 이전에 따른 수도권 인구 유입보다는 인접한 충청권 도시의 인구를 흡수한 부분이 훨씬 커 '블랙홀' 현상에 따른 머쓱한 성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서울신문'에 따르면 세종시는 전날 현재 세종시 인구가 30만 24명이라고 밝혔다. 2012년 7월 1일 시 출범 시 10만 751명에서 3배 정도 증가한 것이다. 30만 명을 넘은 것은 전국 167개 시·군 중 37번째, 충청권에서는 대전, 충남 천안, 충남 아산, 충북 청주시에 이어 5번째다. 시 출범 이후로 증가 인구는 20여 만명인 셈인데, 공무원 등 중앙부처와 관련한 직접적 이전자는 1만 5,000여 명에 불과하다. 중앙부처는 2012년 총리실 등 8곳을 시작으로 한 뒤 2016년 국민안전처 등을 마지막으로 40개 중앙행정기관과 15개 국책연구기관이 이전을 끝냈다.

'세종시 블랙홀'의 가장 큰 피해는 충청권 최대 도시인 대전시가 입고 있다. 세종시 출범 이후 지난해 말까지 대전 시민 7만 2460명이 세종시로 거주지를 옮겼다. 세종시 출범 전까지만 해도 인구가 증가하며 '잘 나가던' 대전시 인구는 세종시 출범 3년차부터 하락세로 돌아서더니 올해 2월에는 끝내 150만 명선이 무너지면서 149만 6,123명에 그

치고 있다. 2010년 2월 150만 명을 넘은 뒤 2014년 7월 153만 6,349명까지 증가한 게 정점이었다. 오는 6월 실시되는 지방선거에 출마한 대전시장 후보들이 앞다퉈 인구 관련 공약을 내놓는 이유다.

인접한 충남 공주시도 세종시 출범 후 1만여 명이 이전해 갔다. 당장 택시 손님 감소 등 경제적 타격도 입고 있다.

김덕중 세종시 자치행정과장은 "전세 값이 대전보다 싸고 교육 여건도 괜찮아 세종시를 선호한다."면서 "공무원 특별분양 등을 제외하고 남은 아파트 분양을 받거나 옷돈을 주고 입주권을 산 사람들이 부동산 상승을 노리고 이사 오는 경우도 많다."고 했다.

세종시의 성장세는 계속될 전망이다. 앞으로 2년간 2만 5,000여 가구의 아파트 등 입주가 있고, 행정안전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중앙부처 추가이전이 예정됐기 때문이다.

인구 30만이 넘으면서 2020년 21대 총선에서 선거구가 2개로 늘어날 경우 정치적 위상이 커지고, 경찰서 추가 신설 등 거주 여건도 더 갖춰질 전망이다. 그러나 인구 급증에 따른 그림자도 있다. 세종시 출범 직전인 2011년 한해 세종시에서 발생한 살인, 강도 등 5대 범죄는 모두 622건에 그쳤으나 지난해는 1,380건으로 2배 넘게 늘었다.

34년을 오직 한 길

벨플라워/세리토스/다우니/플러튼/롱비치/놀릭

빅토리 바디샵

VICTORY BODY & SHOP

LIFETIME WARRANTY!

최대의 시설 / 만족한 서비스 / 저렴한 가격

- ✓ 보험 수리 전문
- ✓ 최신 프레임 머신에 의한
- ✓ 정확한 프레임 교정
- ✓ 노련한 바디맨의 완벽한 수리
- ✓ 최신 머신에 의한 Color Match
- ✓ Towing & Rent Car 알선
- ✓ FREE ESTIMATE



(562)920-9745~6
17441 Clark Ave. Bellflower, CA 90706

